



“리눅스가 유닉스에 비해서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편견일 뿐이다.

**Oracle Unbreakable Linux Support**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뛰어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번 DB서버의 리눅스 이전으로, **SK텔레콤**은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SK 텔레콤**은 이번 프로젝트를 기점으로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국한되었던 리눅스 도입을 점차 확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다른 분야로 점차 확산시킬 계획이다.”

서창원 팀장, SK텔레콤 Data망 운용팀

살펴본 후 오라클에 대한 신뢰감, 체계적이고 믿을 수 있는 지원 서비스, 다른 리눅스 지원업체가 제공하지 못하는 엔터프라이즈급의 기술 지원 서비스 및 기존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 등을 고려한 끝에 Oracle Unbreakable Linux Support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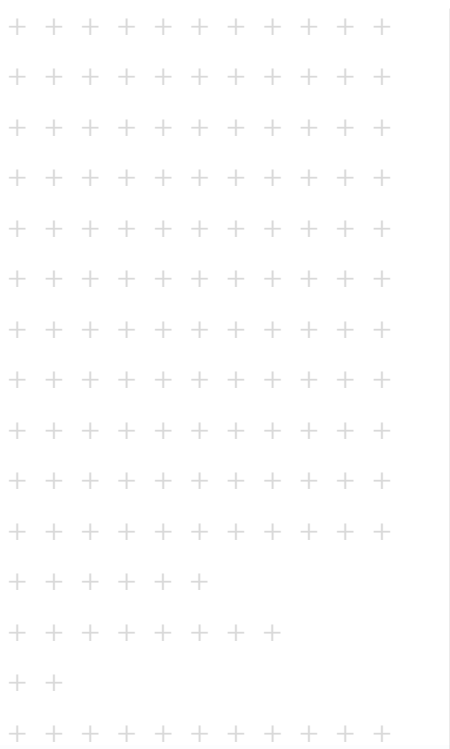
Oracle Unbreakable Linux Support 프로그램은 리눅스에 대한 기술 지원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용 중이던 오라클 소프트웨어들과의 통합지원을 가능하게 해 관리 간소화를 실현하며, 엔터프라이즈급 리눅스 기술 지원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IT 인프라스트럭처의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위한 요건 완비**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는 SK 텔레콤은 발 빠르게 IT 신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도전정신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리더십을 갖추고 있었다. 전문 IT컨설팅 업체를 대체할 정도의 실력을 갖춘 우수한 내부인력 역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이것이 오라클의 엔터프라이즈급 리눅스 기술 지원 정책과 만나 이번 사례와 같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철저한 사전준비 통해 비용효율적인 구축 성공**

SK텔레콤의 이번 서버교체는 유닉스 서버와 비교하여 비용대비 성능이 뛰어난 x86 서버를 도입함에 따라 도입비용은 기존대비 약 10%, 운영비용 역시 기존 대비 15% 수준으로 현격히 낮아져 전체적으로 뛰어난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왔으며 특히 많이 낮아진 하드웨어 관련 비용으로 향후 더 나은 서비스, 기능을 구현하고도 전체 소요비용은 월등히 낮아지는 효과



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마이그레이션은 효율적이고 정교한 준비과정을 통해 보통 3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프로젝트기간을 약 3주 정도로 단축시킬 수 있었다. 또한 철저한 사전준비 및 그 동안 진행해온 데이터 베이스의 설계 구조를 최적화 시켜놓았기 때문에 서버 교체시 소요되는 다운타임을 15분 정도로 단축시킬 수 있었다. 이처럼 최소한의 다운타임과 프로젝트 기간으로 최종적인 도입비용(Capital Expense, CapEx)은 약 60%, 운영비용(Operating Expense, OpEx)은 70% 가량 절감할 수 있었다.

특히, “DB 설계 구조가 비 효율적일 경우 발생하는 성능 저하 및 장애를 고비용 IT 인프라 도입으로 해결하려 드는 것이 IT 업계의 오랜 관습이었다. 하지만 이는 IT 인프라의 TCO 증가를 불러올 뿐 대부분의 경우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실패한다. 고비용 IT인프라에 기대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IT 업계의 병폐는 DB 서버에 오픈 소스인 리눅스 도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강력한 장벽이 되고 있었다. 하지만 과감한 DB 설계 구조변경, 체계적인 IT 운용 Process, Methodology 확립과 리눅스와 같은 Open Source를 통한 저비용/ 고효율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IT 유연성을 확립 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Data망 운용팀에서 실무 PM를 담당하고 있는 최영삼 매니저는 전했다.

**안정적인 무중단 시스템 실현**

이번 시스템 도입을 앞두고 실시된 사전 테스트 결과 유닉스와 동일한 수준의 안정성을 입증해 낸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서버는 동일한 업무에 처리함에 있어 기존 유닉스 장비가 20-30%의 CPU 사용률을 보인 반면, 5% 미만으로 감소하는 등 종전보다 성

능은 더욱 향상되어 더 많은 서비스 이용자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프로젝트의 성과를 통해, 분리 운영되고 있는 다수의 SNS(Social Network Service) 서비스를 위한 DB 시스템을 리눅스 기반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했다. 특히 DB 구조개선을 통한 효율성 증대, 사전 위험관리(Risk Management), x86 장비의 뛰어난 성능 및 리눅스의 안정성을 통해 서비스의 가용성이 극대화 되어 좀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고 Data망 운용팀 실무 module 장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철 매니저는 전했다.

그리고 Oracle Unbreakable Linux Support 프로그램을 선택함으로써 운영체제부터 데이터베이스에 이르기까지 전 시스템에 오라클의 지원체계를 사용하게 된 SK 텔레콤은 문제 발생시 효과적인 원스톱(one-stop)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긴급 상황 발생시 종전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또한 SK텔레콤은 문제 발생시 해결하려던 과거의 방식으로부터, Oracle Unbreakable Linux Support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한 문제상황의 원천봉쇄로 중단 없는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실현하게 되었다.

**리눅스 운영 방법론을 표준화**

지금까지 유닉스 일반도였던 운영체제시장은 하드웨어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리눅스를 중심으로 재편되리라고 예상되고 있다. 이번 Oracle DB 서버 운영체제의 리눅스 이전은 그 흐름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SK 텔레콤은 대규모 이용자를 지원해야 하는 미션 크리티컬(mission critical)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리눅스로 전환한 이번 사례를 통해 또 한 번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리더로서의 모습을 과감히

보여주었다. 또한 리눅스 운영에 대한 방법론을 표준화하며 지금까지의 기술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했다.

그 결과 새롭게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DB 서버의 운영체제로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신속히 채택하고 있다. '모바일 싸이월드'에 이어 메세징 DB 통합 등의 DB 서버를 SK텔레콤의 선진화된 Open Source 방법론, 사전 위험관리 (Risk Management) 및 체계적인 Oracle Unbreakable Linux Support 프로그램을 통해 구축하여 구축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3주 정도로 앞당겨 진정한 서비스 Time-To-Market 경쟁력 확보를 실현해 가고 있으며 고객과 Business Partner사와의 바람직한 BR(Business Relation)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업계 흐름을 재편성할 새로운 시도 통해**

**IT기술리더로 도약 기반 마련**

시대를 앞서가는 도전정신으로 이번 서버 이전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SK 텔레콤은 앞으로도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 리더로 거듭날 계획이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은 2011년 까지 대다수의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리눅스로 교체하고 DB 서버 역시 상당수 리눅스로 교체할 예정이다. 또한 사내 리눅스 전문가 전략그룹 양산도 현재 진행 중이며 통합화된 리눅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안정화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민첩성을 확보해 나갈 전망이다.

ORACLE  
**Unbreakable  
Linux Support**

